

경남도 중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우한·서안을 시작으로 중국 내륙지역 공략

경남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국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중국내륙 지역 바이어 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개의 체인을 갖고 있는 대형유통기업 ‘중바이그룹’을 비롯하여 우한·서안 내륙지역의 바이어 16명이 참여하고, 경남도 내 87개 농수산식품업체가 참가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였다.

우한·서안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륙지역은 아직 한국의 농식품이 수출되지 않은 ‘블루오션(미개척 시장)’으로 자국산 농식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품질과 안전이 보장된 한국산 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고, 음악·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방제품·유자차·음료·조미김 등 K-Food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경남도 내 농식품 진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정책자금 상담회, 수출보험 상담회 등이 함께 진행되어 도내 수출업체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경남도는 오는 11월 중국 청두지역의 바이어를 초청, 중국 내륙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